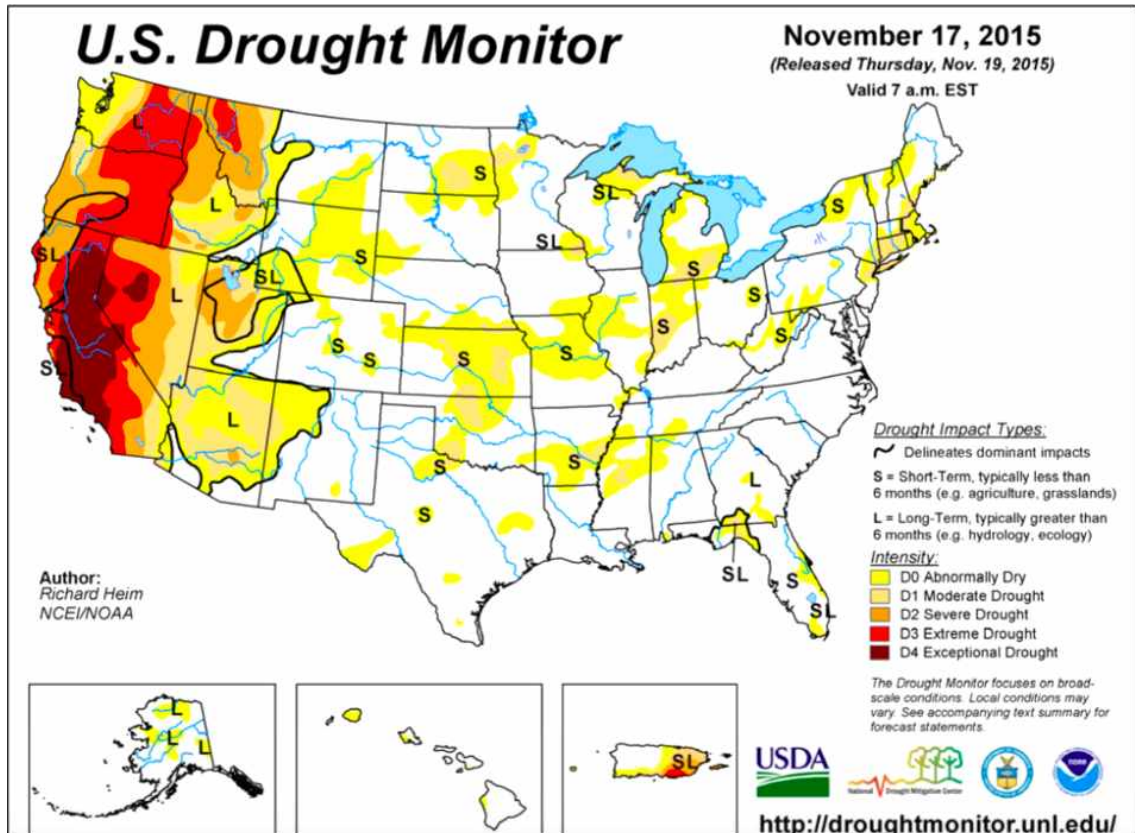


11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7)

□ 미국 기후 현황(11/15~11/21)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캐롤라이나에 이르는 남부 전역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겨울밀 재배자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겨울밀 파종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땅콩과 면화 등 여름작물 수확작업도 조금씩 진행되었다. 미시시피 계곡 중부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미주리 일대의 가뭄을 다소 해소해 주었다. 중서부에서도 비로 인해 옥수수과 대두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중서부 산간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사우스 다코타 남부와 네브라스카 북부 지역에서는 가축 관리로 작업량이 많아지기도 했다. 캔사스 동부 등 중부 평원지역에서는 이번에 내린 눈으로 건조한 토양에 수분이 적당히 공급되었다. 중부 고원지역에서는 지난 16일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부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 비가 내렸는데, 오레곤과 워싱턴 서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었다. 북서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평양 연안에서 포대평원에 이르는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플로리다 북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10°F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11/16~11/22)

동부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로키산맥과 서부 내륙산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플로리다 등에서는 평년보다 8°F 정도 기온이 높았다. 미국 전역에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미시시피와 알칸사스 북부에서는 최고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겨울밀

11월 22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96%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p 낮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4%p 뒤쳐진 상황이다.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 한주간 파종률이 12%p 증가했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 발아율은 90%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p 낮은 수준이다.

■ 면화

11월 22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7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p 낮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2%p 뒤쳐진 수준이다. 텍사스의 면화 수확률은 60%이며, 이는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15% 뒤쳐진 수준이다.

■ 기타작물

11월 22일 기준 땅콩 수확률은 87%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10%p 낮은 상황이다. 비로 인해 알라배마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같은 기간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9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앞선 상황이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앞서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11/15~11/21)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주초반 맑은 날씨를 보이다 주 후반부로 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4~9°C 정도 기온이 높았으며, 밤 사이에도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따뜻한 기온 덕분에 11월 후반이면 겨울밀의 휴면기가 시작되었던 독일, 폴란드 등에서 여전히 겨울밀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등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저기압의 영향으로 25~7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에 비까지 더해져 겨울작물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남부 유럽에서는 한차례 소나기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가뭄이 심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가뭄이 극심했던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10~60mm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지난 90일 이상 지속되었던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겨울밀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어느 정도 공급해 주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C 정도 낮았다. 러시아 남부에서도 10~40mm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 남부의 Krasnodar Oblast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05~140mm의 비가 내려 겨울밀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와 Yangtze 협곡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북부 고원에서는 25mm의 비가 내렸다. Henan, Shangdong, Hebei 등에서는 지난 10월 이후부터 평년보다 조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Yangtze 계곡 일대에서는 지역에 따라 50mm이상의 비가 내렸다.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2°C 정도 기온이 높아 겨울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 호주: 밀, 보리, 캐놀라 재배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덕분에 작물의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수확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남부와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4°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까지 올랐다. 퀸즐랜드와 중부지역에서는 5~25mm의 비가 내렸다.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1~2°C 정도 기온이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까지 올랐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곡창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등 중부지역에서는 25~50mm의 비가 내렸고, 인근의 Cordoba, Santa Fe, Entre Rios에서도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낮 최고기온은 20~30°C까지 오르고 있고, 밤사이에는 기온이 10°C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Santa Fe, Chaco, Formosa 등에서는 25~100mm의 비가 내렸다. 서부지역의 Santiago del Estero, Slatá 등에서는 10~50mm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중부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 브라질: 남부와 중부, 내륙 북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Parana, Minas Gerais 중부 등에서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25~100mm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내륙에서는 2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부의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등에서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는데, 낮 최고기온은 20 중반에서 30°C초반까지 올랐다. 하지만, Mato Grosso 북동부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4°C 정도 기온이 낮았다. 북동부 내륙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도 올랐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졌다.